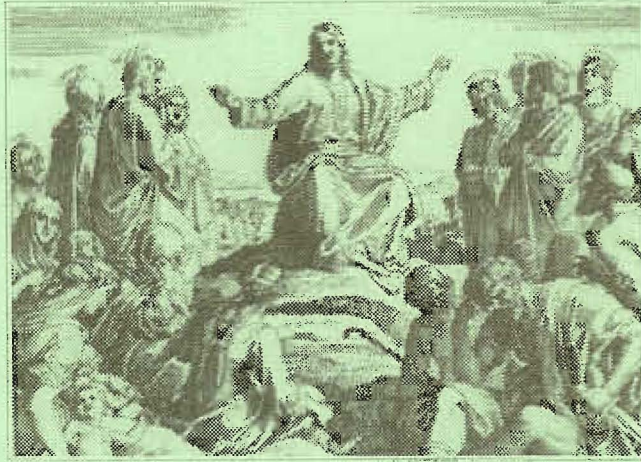


#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전교주일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제32권 47호(나혜) 2012-10-21

## [묵상]



부활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왜 우리의 전교가 늘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진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이 아닐까!  
모든 활동에 앞서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셨고  
아버지와 일치하셨고 아버지를 전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무턱대고 선포만 할 뿐  
나 자신은 예수님과 대화도 일치도 없이  
예수님이 아닌 나를 선포하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의 방법은 내가 하느님과 먼저 일치하는 것  
즉 복음 선포 대상 제 1호는 바로 나 자신  
전교란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믿지 못하는 미숙한 신앙인을 위한 것  
어쩌면 바로 나 자신이 전교대상이 아닐까!

- 柜 -

martinlee0501@hanmail.net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서 연락처) : (310)720-8240

|     |                             |                                |
|-----|-----------------------------|--------------------------------|
| 수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목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금요일 | 아침 미사                       | 오전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 7:30<br>오전 9:30<br>오전 11:00 |

## 주간행사표

|     |                                                                                                                                                                                   |                                                                                              |
|-----|-----------------------------------------------------------------------------------------------------------------------------------------------------------------------------------|----------------------------------------------------------------------------------------------|
| 수요일 |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br>성경공부(그룹반)<br>레지오 마리아                                                                                                                                           | 오후 2:00<br>오전 10:00<br>오후 8:00                                                               |
| 목요일 | 성시간(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br>병자영성체(1째주)<br>예비자 교리반<br>성령기도회<br>울뜨레아(4째주)                                                                                                               | 저녁 미사후<br>오전 10:00<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성경공부(그룹반)<br>M.E. Sharing(3째주)                                                                                                                                                    | 오전 9:30<br>오후 7:00                                                                           |
| 토요일 |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br>소년 레지오 마리아<br>배론 청년모임                                                                                                                                          | 오후 6:00<br>오전 9:00<br>오후 6:00                                                                |
| 주일  |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br>아도라메 성가대<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안나회/양업회, 성모회<br>자모회/대건회/원서회<br>● 꾸리아<br>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br>● 요셉회 ● 제대회<br>-행사의 날<br>4째주 - 사목회 | 오전 중<br>오전 8:3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1:45<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 |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 요         | (연)권순봉 요안나                                                                                                                                        |
| 특전미사        | (생)문 바티스타 수녀                                                                                                                                      |
| 주 일<br>낮 미사 | (연)이경용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김풍길 바오로,<br>박영춘 안토니오, 유정연 헬레나, 한병열 토마스,<br>김영수 데레사, 김중환 야고보                                                                  |
|             | (생)영희가보라 프란치스카, 이윤조 글라라, 오창애 안나,<br>이지원 글라라 가정, 이상훈 프란치스코 가정<br>민원희 안나, 이민상 요한 & 이순자 비비안나,<br>김영언 가누도, 백삼위성당, 하늘의문pr.단원들,<br>토런스 동구역가정들, 문바티스타 수녀 |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2,1-5

화답송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 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를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0,9-1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8,16-20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특전)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입당 | 목마른 사슴   | 200   | 215  |
| 봉헌 | 423      | 265   | 268  |
| 성체 | 하나되게 하소서 | 106   | 292  |
| 파견 | 찬양하세     | 252   | 233  |

###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 강론의 중요성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강론을 준비함으로써, 신념과 열정을  
지니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다음의 질문들을 기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선포  
된 독서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에게 개인적으로는 무  
엇을 말하고 있는가? 공동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때, 나는  
무엇을 공동체에 말해야 하는가?”

설교자는 “먼저 그가 선포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  
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하듯이,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외적으로만 설교하는 사람은 열  
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주일과 대축일  
강론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주중에도 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는 신자들이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  
매 맺게 하기위하여 가능한 한 짧은 묵상을 제시하는 것을 소  
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강론 지침서의 필요성

60). 독서집에 따라 적절하게 설교하는 것은, 길러야 할 기술  
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에서 요청했  
던 것에 이어 관할 권위들에게, 성찬례에 관한 개요서와 유사  
한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강론 지침서와 같이 교역자들이 그  
들의 임무를 가능한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적절한  
도구들과 보조 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설교자들이 직무를 행할  
준비를 하는 데에 유용한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하기를 요청합  
니다.

또한, 예로니모 성인이 상기시키듯이 설교에는 자신의 삶을  
통한 증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행위들이 당신의 말  
과 모순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교회에서 설교  
할 때에 누군가가 마음속으로 ‘그런데 바로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그리스도의 사제 안에서는 생각과 말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 하느님 말씀, 화해, 병자 도유

61). 하느님 말씀과 성사들 사이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성찬례이지만, 다른 성사들, 특히 치유의 성사들인  
화해 또는 참회의 성사와 병자성사에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성사들과 성경의 관계는 흔히 간과  
되지만, 성경에는 마땅한 위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계속>



## 무엇을 바라는가?

요즈음 기발한 춤을 추며 노래하는 우리나라 가수가 전 세계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대에 많은 인기를 누리셨던 분이십니다.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왕으로 모셔야 한다. 그분의 제자가 되자.” 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은 결국 외롭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바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일곱 번 용서하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일흔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데 다른 뺨마저 내놓으라 하시고, 윗자리에 좀 앉아 볼까 했더니 무안하게 끝자리에 내려앉으라 하시며, 성당에서 기도하면 어때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시고, 큰 맘 먹고 거금을 현금했는데 과부의 푼돈만도 못하다고 무시하셨습니다.

법대로 이혼장을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아내를 버리면 천벌을 받으리라 겁주시고, 재물을 좀 쌓아두려 했더니 오늘 밤에 데려가신다고 협박하시고, 뭐가 그리 급하다고 아버지의 장례까지 남들에게 맡기고 당신을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사사건건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시고, 잘했다 싶은 것도 전혀 칭찬해주지 않으셨으며, 위로 좀 받으려고 했을 때는, 더 힘든 멍에와 십자가를 내미셨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마음은 실망과 배신의 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러저러한 것을 바라고 있다면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고, 걸려 넘어지는 우리를 믿고 주님께서 계속 도와주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오장육부 만드시고, 머리카락까지도 낱알이 새어 두시며, 우리 어미 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주님께 우리를 맡겨 드리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도하고 노력하여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까? 주님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 또한 우리의 길과 다르니 신앙의 길은 그리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가톨릭 종교를 만민에게 전하자는 전교주일입니다. 종교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교는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미사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다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혼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여기며, 벗을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기적인 세상을 이겼다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 전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교는 정복이 아닙니다. 경쟁의 승리자가, 기득권의 소유자가 우월감에서 자비를 베푸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교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전교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 그늘 속에 던져져 있는 사람들 안에서 피눈물 나는 사랑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로 지나가시게 하는 것이 전교입니다. 혹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고찬근 투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 이번주 전례봉사자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송민영<br>보나      | 신덕례<br>대례사  | 채승희<br>에스터   |
| 제1독서자 | 이범주<br>다니엘     | 이민상<br>요한   | 이영석<br>크리스토퍼 |
| 제2독서자 | 이은지<br>수산나     | 이순자<br>비비안나 | 전하현<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서 3반  |

### 다음주 전례봉사자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곽수진<br>보나      | 박희자<br>마리아  | 이재용<br>안드레아  |
| 제1독서자 | 최태훈<br>아오스딩    | 박진수<br>스테파노 | 이상철<br>크리스토퍼 |
| 제2독서자 | 최보나<br>보나      | 박혜경<br>레나타  | 이희경<br>크리스티나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동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문 바티스타 수녀님 가시고, 오향숙 마우라 수녀님께서 새로 오십니다.

지난 2년8개월간 백삼위 본당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문임순 바티스타 수녀님(올리베라노 성베네딕도 수도회 소속)께서 소임을 마치고 10월22일(월) 귀국, 솔피 베네딕도의 집 책임수녀로 부임하십니다. 어디에 계시거나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하면서, 그 후임으로 오시는 오향숙 마우라 수녀님(계셨던곳:자산재활원)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 마우라 수녀님."

◆ 오늘 전교주일 2차헌금 : 10월21일(20일 특전미사 포함)  
오늘(10월20/21 주일)은 '전교 주일'로 전세계 선교지역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전교주일 특별 헌금은 '교황청'에 보내져 전 세계 선교지역의 교회를 돕는 데 쓰입니다. 적극적인 봉헌을 바랍니다.

◆ 예비자교리 및 신자재교육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후
- 장소 : 성전(신자재교육 차원에서 마련되는 교리시간에 일반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교리지도 :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개정된 메디케어 건강보험/올바른 장례준비 강의

- 일시 : 10월21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 성전
- 강사 : 이정훈 안셀모
- 문의 : 사회복지분과장 차인수 안드레아 ☎(310)256-6001

◆ 본당 교우들을 위한 10월 신앙특강

- 일시 : 10월28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 성전
- 주제 : '긍정과 감사의 마음'
- 강사 : 현광섭 프란치스코 신부(한국 군중교구)

◆ 본당 어르신 온천 효도관광

- 일시 : 10월30일(화) 오전 7시10분까지 성당 집합
- 장소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회비 : \$20(1인), \$30(부부, 가족2인 동반시)
- 신청 : 55세이상 선착순 45명, 28일까지 접수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겹옷, 타올 \* 주관 : 안나회

◆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 모집

- 성가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숭고한 기도입니다. 하느님께 올리는 합창의 기도에 나의 목소리도 합쳐서 올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새 단원을 초대합니다.
- 대상 : 음악을 사랑하는 남녀교우
  - 문의 : 지휘자 민원희 안나 ☎(310)634-9631

◆ 상분 콜링(전화)카드 판매

- 상분(성모님) 콜링카드(전화카드) : \$20
- 한글-영어 합본 상장예식서 : \$15 \*사무실에서 판매

◆ 미주가톨릭 방송(KCBC) 방송시간 안내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9시 라디오서울(AM 1650)
- 매주 일요일 아침 6시~8시 우리방송(AM 1230)
- 방송국 주소 : LA 3435 Wilshire Bl. #2780  
☎(213)220-1245

† 주님, 고인 이진행 힐라리오에게 길이 평안함을 주소서.  
이진행 힐라리오(41)님이 10월15일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삼위 사목회 홍보분과장을 지낸 힐라리오님은 박선희 소피아님의 아들로 작년에 온식구가 오렌지 카운티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로 전출했습니다.  
\* 고별식 : 10월22일(월) 오후 7시30분 뉴욕 한국장사사  
12325 Rosecrans Av. Norwalk, CA 90650 ☎(562)868-0788  
\* 장례미사 : 10월23일(화) 오전 9시 성토마스 한인천주교회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714)772-3995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21일(주일) : P.V. 1반(육개장 \$3)  
주일학교(8학년 하이라이스)
- 10월28일(주일) : 하버/카슨구역(소고기무국 \$3)  
주일학교(7학년 카레라이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                         |                         |
|----------------|-------------------------|-------------------------|
| 교무금            | 강운철 권태만 김교복 김대우 김병학 김재영 | 강운철 권태만 김교복 김대우 김병학 김철민 |
|                | 김정희 김철민 김형순 김호순 남명자 박완철 | 김형순 김호순 남명자 박완철 박정희 반비오 |
| 미사헌금 : \$2,576 | 박정희 반비오 배기엽 송영미 송준규 신경훈 | 신경훈 안재만 윤희동 이우성 이일길 이현주 |
|                | 안재만 윤석구 윤희동 이영석 이우성 이재우 | 이효세 정규숙 정상문 정순석 정열모 최원석 |
|                | 정열모 최원석 최의수 최희숙 한길선평    | 최의수 한길선평 송마이클           |
|                | 합계 : \$3,190            | 합계 : \$1,910            |
|                |                         | 주보후원금 : \$250(감사합니다.)   |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자모회 기금모금 바자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교우 여러분들의 협조로 오늘 주일(21일) 학생미사후 친교장 앞 부스에서 바자회를 갖습니다.
- 품목: 좋은 가격의 할로윈 의상 및 어린이 드레스와 구두
- 맛있는 도넛과 커피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장주란 마리아 자모회 부회장 ☎(310)486-1982

주일학교 백투스쿨 데이

- 일정: 오늘 주일(10월21일) 고등부 9~12학년
- 시간: 주일학생미사 후 10시30분~11시30분(수업시간중)
- 장소: 각학년 교실
- 대상: 주일학교 학부모, 적극적인 참석 바랍니다.
- 문의: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남가주 소식

2012 남가주 가톨릭청년연합회 성경퀴즈대회

- 일시: 11월3일(토) 오후 6시~9시
- 장소: 미정
- 지도신부: 최용훈 요셉 신부

'좋은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Season 3'

- 미혼 가톨릭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 신앙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의 시작입니다.
- 일시: 11월10일(토) 오후 5시~10시
- 장소: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
- 대상: 남자(82년~73년생), 여자(84년~73년생)
- 문의: 전양주 데레사 ☎(562)822-6448

제30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 일시: 11월22일(목) 오전 10시 연합미사
- 2부행사: 오후 1시, 각성당별 경합 '우리성당 스타일' - 강남스타일 패러디 혹은 각본당만의 독특한 스타일 표현
- 장소: El Dorado E. Regional Park(롱비치)
- 주최: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성 라파엘 성당
-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 없습니다.
- \* 행사당일 오전 9시30분까지는 공원주차 무료 및 모자도 무료증정합니다.

2013 LA마라톤 앞두고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SBRT : 사우스베이 러닝 팀) 회원 모집

-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지금부터 연습,훈련하면 됩니다.)
- 장소: 사우스 하이스쿨
- 대상: 남녀노소 누구나 환영, 걷거나 뛰는 사람
- 연락처: 회장 윤희동 안토니오 ☎(310)365-7871  
코치 최현찬 안드레아 ☎(310)257-1996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 소공동체 부 장<br>차 장<br>차 장 |     |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br>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br>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                                            |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김춘자<br>막달레나   | 1   | 이순자 비비안나<br>213-675-0498                                        | 배태임 안나 781-9199<br>10/13(토) 오후 7시          |
|                        | 2   | 김찬구 요한<br>701-6343                                              | 김막달레나, 욕울리아 539-3377<br>10/13(토) 오후 7시     |
|                        | 3   | 문지숙 엘리사벳<br>854-9407                                            |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br>10/12(금) 오후 8시 성당     |
| 토런스 서<br>장정진<br>베로니카   | 1   | 이진향 아녜스<br>989-0366                                             | 김주량 요한 989-0366<br>10/2(화) 오후 7시 반미사       |
|                        | 2   | 유선영 클라라<br>424-241-5988                                         | 이명렬 라파엘 749-0276<br>10/23(화) 오후 7시 반미사     |
|                        | 3   | 신경희 클라라<br>424-903-5051                                         |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br>10/17(수) 오전 10시30분 |
| 토런스 남<br>이희경<br>크리스티나  | 1   | 오창애 안나<br>974-2857                                              | 임순 데레사 974-2857<br>10/19(금) 오후 7시30분 성당    |
|                        | 2   | 박정람 마르시아<br>634-6923                                            | 이경수 헬레나 634-6923<br>10/11(목) 오전 11시 성당     |
|                        | 3   | 전하현 마리아<br>213-550-6653                                         |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br>10/20(토) 오후 6시     |
| 토런스 북<br>최미열<br>클라라    | 1   | 조화숙 안젤라<br>213-272-8393                                         |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br>10/13(토) 오후 7시     |
|                        | 2   | 1반과 같음                                                          | 1반과 같음                                     |
| 하버 카슨<br>이정자<br>아그네스   | 1/2 | 주영애 겐마<br>818-640-3656                                          | 이병우 마리노 784-0585<br>10/9(화) 오후 7시 반미사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김명재<br>아가다    | 1   | 남경희 베네딕다<br>384-3289                                            |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br>10/21(주일) 낮 12시 성당    |
|                        | 2   | 금유미 크레센시아<br>482-9108                                           | 금영도 베드로 482-9108<br>10/12(금) 오후 7시         |
|                        | 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377-7063                                           |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br>10/12(금) 오후 7시       |
|                        | 4   | 이귀란 아녜스<br>617-3568                                             | 김인숙 안젤라 617-3568<br>10/9(화) 오전 10시30분      |

이번 주 단체 모임

|         |       |
|---------|-------|
| 사목회장단모임 |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         |       |
|---------|-------|
| 10월 사목회 | 오후 1시 |
|---------|-------|



##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전교 주일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을 맞아 신앙의 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복음화를 주제로 세계 주교 대의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는 더 큰 용기와 열정으로 만민 선교에 투신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교회의 의지를 다지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교회론의 중심으로 삼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신앙의 해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믿음의 문」, 7항)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지녔던 사도적 열정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선포와 증언을 통하여 당시에 그들이 알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하느님 백성 전체가 투신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선교 사명은 개별 교회의 존재와 활동 전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특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 시대에, 교회의 생활 방식과 사목 계획, 교구 조직도 선교에 맞추어 끊임없이 쇄신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야 합니다.

복음화를 위한 열정적인 투신을 가로막는 것은 대부분의 인류가 겪고 있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을 묵말라하고 갈망하는 인류를, 생명수로 초대하고 인도하여야 합니다. 마음의 갈증을 풀어 주시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한 현존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그분을 알려 모든 이가 이 기쁨을 체험하게 하려는 열망이 솟아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화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활동과 개인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곧 그들은 자신이 복음화의 대상이고 동시에 복음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선포의 핵심은 언제나, 세상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선포(케리그마)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받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며, 이 선물은 우리만 간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심지어 온 가족이 교국을 떠나 다른 교회로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교회의 보편 선교에 협력하는 교황청전교기구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활동으로, 복음 선포는 이웃을 돕는 발언이 되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의가 됩니다. 또한 오지에 교육 기회를 주고, 벽지에 의료 지원을 하며,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소외된 이들을 받아들이며, 민족들의 발전을 지원하고, 인종 갈등을 극복하며, 모든 단계의 인간 생명을 존중하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특히 선교 일꾼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하느님의 은총으로 선교가 세계의 역사 속에서 확고한 진전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시고 복음화의 별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모든 복음 선교사들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 성당 다니는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 있니? 라며 실망하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신자들이 모두 모범이 되고 좋은 표양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신자가 더해’ 라며 비아냥대는 소리를 들을 때면 씁쓸해집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원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기에 앞서 ‘내 탓이오’라며 가슴을 쳐야 하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 출발부터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죄인 베드로를 반석으로하여 세워졌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편지 수신인인 소아시아 초대교회 또한 오늘날 우리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갈망하지만, 현실을 사는 인간들의 공동체에서 분열과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동시에 하느님께서 그 구성원인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는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이기도 합니다. 교회로 거룩하다 할 수 있는 까닭은, 그 구성원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께서 손수 이 죄인들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거룩한 몸을 구성하는 성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